

요즘은 여름 설사보다 가을 설사가 더 많아 졌고
가을 설사는 抗生劑에 효과없어, 꼭 專門醫 찾아야

환절기 아이의 설사

특히 9월말부터 11월초에 많이 보는 병

홍 창 의

여름철에는 온도가 높고 여러가지
음식물이 변질하기 쉽기 때문에 설사
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을 바람이

불면서 날이 쌀쌀해지던 소위

“가성영아콜레라(假性嬰兒콜레라)”
가 많이 유행하게 된다.

예전에는 영아(嬰兒)의 설사라면 주
로 여름철에 보는 가장 중요한 어린
이 질병이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속
아범의 개선과 항생제의 발달 등으로
여름철 설사증은 차차 줄어들어 드물어
졌고, 반면에 가을철 설사가 늘어 요
즘은 매년 가을에 큰 유행을 보게 된
다.

가을철의 설사증은 바이러스로 해
서 오는 것으로 생각되며 항생제에
효과가 없다. 특히 이유기(離乳期)아
동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가성 영아콜
레라가 유행하는 시기에는 환아의 세
명중 한명이 이 증세로 병원에 오는
것을 보게 된다.

“가성콜레라”라는 급작이 구토, 설
사로 시작되는데 대변이 콜레라를 연
상시키는 끈물같은 물설사를 하기 때
문에 많은 부모들을 놀라게 한다. 그
러나 이 설사증은 콜레라와는 전연
다른 것으로 비교적 예후가 좋아 회
복되기 시작하면 급속히 진신상태가

假性콜레라가 3명중 1명꼴, 꼭 콜레라 症勢답아 이 름 나쁘다고 “流行性 가을 설사증”으로 부르기도

중아지는 유행성 질환으로, 이러한 병명은 증지않고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유행성 가을 설사증 또는 토사증”(Epidemic Autumn Diarrhea)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질환은 생후 3개월에서 2년 6개월까지의 연령, 특히 6개월에서 14개월 사이의 이유기(離乳期)에 많이 발생한다.

이 병의 특징은 대체로 열을 동반하며 구토 및 설사증이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설사는 신 냄새를 풍기는 쌀뜨물과 같은 물똥으로 그 변동이 빨라 황백색, 녹색변으로 변화함을 볼 수 있고, 구토는 대체로 1~2일 지속되고 3~6회 토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

이러한 설사증을 나타내는 환자의 약반수에서 감기증세가 같이 혹은 전구증세로 나타나고, 유행하는 계절은 9월 말부터 11월 초순에 이르기까지. 외기온도가 하강하기 시작하는 한냉기(寒冷期)로써 기온의 차이가 비교적 클때, 특히 평균기온이 15°C전후인 10월 중순에 발생율이 제일 많다.

혹자는 한냉자극으로 인한 생체반응의 실조(失調)로, 오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나 대개 특수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한다고 생각되고 있다. 이 “가성 영아콜레라”의 예후는 양호한 것으로, 대부분의 경우 대증요법과 함께 일시적으로 음식을 먹이지 않고 입으로 수분을 공급 함으로써도 3~4일 만에 증세의 호전을 보이나, 일부 환자에서는 병의 초기부터 심한 탈수증상을 보여 의식이 혼미하여 질 정도로 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때에는 정맥주사에 의한 수분, 전해질 및 산·염기의 평형유지가 중요한 문제라 하겠다.

가벼운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어떤 환자는 중하게 될 수도 있고, 혹은 뇌막염 등으로 오인 될 수도 있으므로 소아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고 치료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필자=서울의대 소아과>

• 기생충 박멸 표어

너도 나도 다 같이 기생충 검사 받자